

본보는 1
刊) 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개회하는 출판을 하는 것 보다
앞으로 영구히 뻗어나갈만한 계
회를 세우기 시작하려고 하
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일본에 있는 우
리 교회운동의 취진과 발전을
보나 우리 교포교회의 긴급성
으로 보나 이 이상 더 지체할
수 없음을 느낀 우리는 금
일부터 주간의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회에 임하여 이
제 본보의 목표와 사명을 다

社說

本報의 目標와 使命

시한변 1
표명하고자 한다.
2
六十만 재일 교포를 위하여
사상적(思想的) 정신적으로 빛
이 되고 목자가 되고자 본보는
늦게나마 고함소리를 치고 나
선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
다. 재일 대한 기독교 총회를
중심하여 교회 운동의 기관이
되며 재일본 교포의 사상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자임(自任)
하고 출발한 것도 이미 다 아
는 사실이다. 문제 교우들에게
정신적 양식을 공급하고 따라
서 신앙의 올바른 향상과 진

3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상적으
로 정치적으로 자못 복잡한 것
이 있는 지라. 이상에 말한 것으
로 우리의 슬로건은 밝히 인
식할 수가 없으므로 이제 다
시 반복하면서 말을 분명히
하여 본보의 목표와 아울러
본보의 사명을 선명히 발표하
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
한 속죄구속의 교리와 순결하
고 정결한 절대 자기 희생의 기
독교 사회론(社會倫理)만이
우리 민족과 세계를 구할 수 있

4
우리는 동포 가운데 나날이

모든 피하여 아플러 일반 우
리 교포에게도 한글 문서로 좋
은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
리의 소원이자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상적으
로 정치적으로 자못 복잡한 것
이 있는 지라. 이상에 말한 것으
로 우리의 슬로건은 밝히 인
식할 수가 없으므로 이제 다
시 반복하면서 말을 분명히
하여 본보의 목표와 아울러
본보의 사명을 선명히 발표하
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
한 속죄구속의 교리와 순결하
고 정결한 절대 자기 희생의 기
독교 사회론(社會倫理)만이
우리 민족과 세계를 구할 수 있

9月15日(月)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新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允台
主筆 蕭田榮澤



基督新報
KOREAN CHRISTIAN NEWS

聖句
너희가 내말에 거하
면 진리를 알지니 진
리가 너희를 놓아 주
리라.....아들이 너희
를 자유케 하면 너희
가 참으로 자유 하리
라. 요한 8 32 36

신앙집회회의는 에큐메니즘에
따라 오래 전 부터 논의되
어 오는 기독교회(신교) 정
치문제를 협의하는 회의였
는데 크게는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2) 신앙교백 문제
(3) 사구라멘트(聖禮典) 문제
(4) 성직제도에 관한 문제다.
이 회의에서는 천주교 외의
신교 각파의 문제가 근본적
으로 논의되었다. 그렇기 때
문에 각국 각파에서 신학자

八月十五日(月) 二十九日
지 수계권 문트에서 열렸던
신앙집회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
석 하였던 김상권(장로교총회
총무)목사는 지난六日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던 도중 동경에
들렀는데 방문한 기자와의 질문
에 김목사는 동회의 내용에 관
한 개략을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김상권 목사

27.9
教派間の協調漸進
信仰職制會議之發展
長老教代表金牧師談

와 목회경험자들이 주로 대
의원과 원로(長老) 감사로 모
였다. 동구각파에서도 세로하
로라키아와 알가리(와 동
부독립서) 등의 참가되었다.
가장 문제되었는 성직제문
제와 성직제도 문제였는데
그것은 서양교회에서 오랜 연습
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우리나라 현실을
면문제도 있고 하기에는 여
기서 발표할 수 다.
여하간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



조기선 목사

趙淇善牧師本國訪問

九月하순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기연 총회에 재일본 한국
기독교 총회 대표로 참석하는
조기선목사는(大阪北部教會)十
三日 이와구니(岩國)비행장에
서 O.A.I로 출발 하였다.
無神論國에 聖經을
W.O.U에 대항 하기 위하여
김성원「그리스도교회국교회」
라는 단어가 있다. 그 단어의
방향은 근본주의에 의한 것인데
창의 장막 후면에 있는 무신
론을 타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회를 세웠다. 그 새 개회
라는 것은 서구라파 지역(地境)
에서 서풍(西風)을 이용하여

여나는 문제들을 통괄하
았으므로 연구하여 보고한다
세계각국 각파 목회자와 신
학자들의 한 자리에 모이
주 안에서 하나의 의지로
합의 했다는 것은 그 후속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을
을 알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는 돌로 나누어
져 갈등을 지고 있다는 데서
더욱이 같은 민족사이에도
살의 전쟁을 하고 있는 우
리나라에 대한 관심은 건
국열의 한국실정 보고서만큼
연은 것은 세계의 관심점이
어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베로소로라키아 대표와는 서
로 목을 안고 울며 동독을
공산 마찰에서 긴장 법
을 약속하였다. 주안에서만 통
할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통하며 에큐메니즘 운동의 환
발한 발전에 노력한다.

생명을 바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미국 루터교회는 지난 6월 15일...
미국 루터교회는 지난 6월 15일...
미국 루터교회는 지난 6월 15일...

美國 루터교회는 合同委員들 努力의 成果

미국 루터교회는 지난 6월 15일...
미국 루터교회는 지난 6월 15일...
미국 루터교회는 지난 6월 15일...

被壓迫人民을 宗教에 歸依 세교 共政 教會 盛況을 警戒

세교(세력교)의 위성국인 세교로 바뀌어...
세교(세력교)의 위성국인 세교로 바뀌어...
세교(세력교)의 위성국인 세교로 바뀌어...

北韓都市 爆擊 中共治下의 舊敎聲明

중공치하의 개종교회북경...
중공치하의 개종교회북경...
중공치하의 개종교회북경...

祖國再建에 即應할 新生活設計書出版

신생활운동과 사회사업...
신생활운동과 사회사업...
신생활운동과 사회사업...

우리는 전세계 모든 개종교회...
우리는 전세계 모든 개종교회...
우리는 전세계 모든 개종교회...

聖經學校開學
제일은 한국기독교총회...
제일은 한국기독교총회...
제일은 한국기독교총회...

本報週刊斷行
교회의 발전과 재일...
교회의 발전과 재일...
교회의 발전과 재일...

社告
교회의 발전과 재일...
교회의 발전과 재일...
교회의 발전과 재일...

關東地方會開催
관동지방회에서는 오는 18일...
관동지방회에서는 오는 18일...
관동지방회에서는 오는 18일...



人事
△단. 파우엘...
△단. 파우엘...
△단. 파우엘...

△金南樞牧師...
△金南樞牧師...
△金南樞牧師...

總會長輪番制獻議決定

教役者厚生年金制設定도

關西地方會總會를리드

관서지방회는 지난 九日 오 전午後 二時(神戶) 교회에서 전영목사 사회로 찬송三十二 장을 부름으로 개회 되었다. 비록 노교회 정인수 주사의 성교가 있은후 목사 조기선의 장의 사석으로 성찬식이 집행되었고, 의사도의에 앞서... 금번에 선임된 단, 파우엘 선교사 내외를 환영하고 오전시한은 예정대로 끝마쳤다.

一、修養會開催經緯

西南地方修養會記

牧師 李宗憲



경 광 회 양 수 방 지 서

금년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방회별로 수양회를 열지 아니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남지방회에서도 별개로 수양회를 개최할 의도는 없었으나 그러나 총회수양회 시일이 임박하여도 각 교회에서 총회수양회 참가신청이 없기에 채임상 그 심정을 알아본바 총회수양회 장소가 없다는 것, 따라서 저지같은 여비를 장만하기 어렵다하여 총회의 결의는 있었다 할지라도 서남지방은 또 다른 성도의 일년에 한번씩인 수양회를 지방회 주최로 열면

二、三日間の順序

시일은 八月二十五日 오후五시부터 二十七日 오후四시까지였으며 장소는 구마모도현(熊本縣) 아소산(阿蘇山) 구마모도YMCA 회장이었으며 감사(謝詞)는 구마모도 일본기독교교회 목사가 쓰오모지사부로(松本治三郎) 씨였다. 그는 일본 기독교 교회의 소장파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부탁한 강연내용은 총회수양회 목적에 따라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보람이기 위하여 「현대신학 사상과 세계기독교의 동향」을 말하여 말하고 하였으나 감사할만한 사정으로는 「영원성」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강연을 맡게 되었다.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알고 싶은 현대신학강연을 세시간과 담회 시간에 분담하여 듣고 내어 볼 수 있었으며 부른내신학의 차이점의 설명을 들었고 개독교교회의 유종과 발전상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들 사이의 공동한 당면문제를

動乱下の大韓Y動態

在日韓國Y 朴永昌

(2)

△인천(仁川) Y M O A 수도 서운의 운영과같이 두차례나 공산군의 점령을받고서도 다행히 회관이 보존되어 회관문세만은 해탈된셈이다. 동회관은 건평一五九평의 사무실과 대평주택, 三十一평 광당四六평 교실十二평인바 해방후인 一九四八년六월에 Y 연합회의 보조금과 당시 모금한 금액(二五) 만원으로 새로 구입하여 인천 중앙지대인 신흥동 二의四三번지에 자리를 잡은 아담한 이층건물이다. 창립은 一九四八년七月十一일이며 현재회장은 이기택(李基赫) 목사이며 중무는

이재덕(李載德) 씨이다. 현재 이사(理事) 수는 十五명, 정회원 九五명, 준회원 九〇명, 소년회원 二四명, 합계二〇九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으로는 총무一명, 간사二명, 기라 직원二명의 현역진이 전후 봉사사업에 열중하고 있는바 동회원의 활동은 크게 주목되며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경주(慶州) Y M O A 전각Y를 통하여 불매에 대해가 있었으나 남한에서도 유명한 삼각지대에 가까운 경주

는 그야말로 적의유린에서 구출된 해운의 도시인바 동시는 특히 신라(新羅) 문화의 발상지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에도읍일에 감하여 동시가 전재를 입지 않은것은 실로 천만다행이었다. 동시에 Y가 창립된지는 一九四七年十一月十五日로써 회장에 김종대(金宗大) 씨 총무에 김효근(金孝根) 씨로(의망이 높은인재) 경주시시동(路事)리에 二七三의번지제기지 一三一평(전면三층) 일층사무실 二층 회집실과 회의실 三층 총무간사실 임시호실등이며 후방건물은 광당과 교실사택등으로 완비된 회관이다. 현재 이사(理事)는 十五명 정회원 一一〇명 준회원 八五명 유교회원 五三, 동해의 흑색인 여자교회원 三六명 합二八四명의 회원이며 재학생이 一三二명이다. 현역직원은 총무一인 간사二인, 기라직원 五인이다. 동회관설립 동기도 한국Y에 협동총무로 평면되었던 피휘박사의 활동으로 앞선하여 획득된 북미(北美) Y M O A의 보조금인것을 부기한다. 그러나 동회관은 자력경제로 자주적으로 회관을 중축하고 있는것은 더욱 경하 할일이다.

△부산(釜山) Y M O A 부산시는 금번 한국동맹에 있어서 가장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 등재케된 사실이이다. 동시는 유명한 삼각지대의 최전위의 관문으로 이삼백국의 U M 군이 모다 동시에 상륙을 하였던것이며 대한민국의 정부현재와 공사가관과 애국전열의 자양분을



曠野의 聖殿
牧師田榮澤

卷一〇一11 16

옛날에 평민은 임금술 바로 만날수가 없었다. 임금이 개신 교회를 대문안에도 보통 백성은 들어가지 못하였다.

세상에는 임금에게 바로 나아갈수 있는 길은 없는줄로만 알았으나 만주주의 국가에서 그 주권자인 대동령을 바로 만나볼수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것처럼 연간에 하나님을 직접으로 대하고 사할수있는 더욱 놀라운 도리가 기독교에 있는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짖고 가까이 사할수가 있는것이다. 좋은 그 상전을 직접으로 천이 사할수없으나 아들은 바로 대하고 아버지의 방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천이 대하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대할수 있는것이다.

(로마 8:15)



敎會學敎座
敎師講座

指導의 根本問題
魯安理

어떤날 한 학생이 자기는 애기가 되었다면 좋았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되었다.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그 일생 생업이랄까 그 사명을 생각케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것을 알고 있는 이 선생은 이 기회를 노치지 않고 교묘한 지도를 하였건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애기가 될 필요가 있는가. 그 애기가 될 무었인가. 남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 주는가? 우리의 일생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최고의 생활표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여러가지로 관련 있는 문제들을 제출하여 생각하여야 할까. 그동안 그들은 여러가지

직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를 받았던것이다. 그들의 화제 속에는 예컨대 가사(家事)나 어머니의 직분 같은 문제도 들어 있었다. 보육(保育) 부문과 사회사업 부문으로는 병원 빈민구 감육등을 방문했다. 이 경험으로 여학생들은 인생의 다른 또 한 측면을 보았던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들이 남에게 베풀주는것에 일종 우월감(優越感)을 가지게 되었다. 한번은 그들은 한 모 법적인 가정을 방문하여 그 주인공 본인을 만나 한동안 이야기들을 하였던것이다. 교사

어린이들에게 유익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이다. 이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으나 가까스로 살아가기에는 부족없는 가정이었다. 주인은 미술가였는데 돈을 얻기 위하여 난작(亂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부인도 교양이 높은 사람으로 훌륭한 학자였다. 두사람이 다 외국 사람이었다. 그들은 문학과 문화에 관한 문제를 말해 주었다. 여러가지 나라의 국어에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돈을 탐치 않았고 그다지 귀하게 생각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그 부부를 통하여 정결한 감화를 받고 돌아왔다. 외국인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들의 태도도 이 기회로 인하여 펴 달라졌다. 또 참으로 가치 있는 생활이 어떤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이전과는 아

영배히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 있는 가치표준을 변경시키는 일을 하여야 하는것이다. 한 신문지상에 빈민굴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한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빈민들은 멀리하던 편견이 이기사로 한층 더 증대되었다. 다음날 그 지상에 한 사회사업가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한것이 게재되었는데 이 구역은 항상 빈민굴로서 일반이 배척을 받아온 구역이라는 변경을 쓴것이였다. 이 기사를 읽고 많은 시민들이 시의 몇몇을 손상하는 말이라하여 심히 불쾌를 느꼈다. 정치는 교회의 어른들은 주일마다 교회 성경반에 가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 감격이 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들의 잠을 깨울려고 선생은

우리는 선배이나 지도자를 요구한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출할 존경하고 따르는것은 관례였다. 아담과 노아는 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너무 따르는 나머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할수있고 나쁜 사람은 다 소용없는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영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진것이 아니라 대제 거가 사할때에 받은 것도 아니오 누가 나를 가르친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받은것이다』 하라. 바울의 받은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 혹은 사람이 쓴 책을 의지하고 혹은 철학있는자로 의지하는 논하여 우리는 성경있는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며 힘있고 용기있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문학가나

무엇에 능가한 연세나 사명을 의지하고 모방함으로 복음의 실체와 본질을 잃어버리는것 같다. 사람의 가르침과 지도를 기다리고 의지하는자는 신앙의 확신도 큰 힘도 얻지못한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것처럼 삼으로 가고 골방으로가자 사람의 의지와 주석보다도 바로 성경을 읽을것이오 선생의 말의 소리를 들기보다도 독창한 세속을 떠나서 하늘의 구름과 별을 보면서 『왕의 성전』의 문을 가서 요요의 주의 음성을 들이 구원의 자라도 가지오 사명의 계시도 받아야할것이다 오세가 미디안에서 받은 교복을 받고 엘리아가 호렙산에서 드론을성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드론 음성을 드려야 하나님의

實話

새사람된

『아나니』 허락적이기엔 일인 가나. 『그 사람 참 변했다』 『글세 아주 단 사람이되었어』 요새는 당초에 단박수도 없나 자네 아는가 변 일이야. 『그 사람 예수 믿고 그렇게 변했다네. 그렇게 형편 없는쪽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변했다네』 『그대 화우간 변하기는 굉장

남사랑 제사랑

전도자 한 사람
 남사랑 제사랑
 가심시다" 하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를 재촉하며 언
 저가 버린다. 뒤에 남은 선
 선생은 그 사람을 우선 힘써
 주물어 주었다. 한참 주물고 나
 니가 그도 몸이 풀리고 자기
 도 몸이 풀렸다. 그래서 그 행
 인을 간성이 업고 가든 길을
 가노라니까 앞서가든 본도인
 종자는 그 동안에 앞서서 수
 장이 되었다고 한다.
 남을 생각하교 사랑하느것이
 불국을 자기들 생각하교 사랑
 하는 것이다.
 마태 10:39, 누가 10:30-35

필수 있다.
 (下十九九二) 끝

恒氏

그수 믿으면 그럴
 우리
 『목사님 이것 보십시오』 하면
 서 팔을 벌고 보이는게 꼭 마
 약 중독자처럼 무슨 상처자의
 가 수두룩하였다. 『이런 놈이
 하나님께 은혜로 회개했습니
 다』 그는 웃으면서 팔을 웃을 내
 리우고 다시 하는 말이 『목사
 님 놀라시겠지요. 제가 야편침
 맞은줄 아시겠지요. 마는 제
 제손으로 상한 것입니다.』

노력을 다해 보
 소용이 없었다.
 평온한 생활에
 이는 것도 원치
 조용히 앉아서
 들으면서 묵
 사를 보기도 묵스
 라고 생각했던
 시간을 보내다
 에 들어가서 저
 화평스러운 생
 마침 이때다.
 소중히 보
 보도된 범죄사
 형의 형편이 법
 양을 맡게 주
 어주는 그 주
 행을 비단하
 사람은 빈민
 화를 이라고 한
 (恒氏) 하의 날
 생기에 되자 어

사물을 해도 잘못을 해한 일
 은 별로 없답니다. 큰이 나면
 제가 제 손으로 재물을 상하지
 사남 제 아내에게는 한 번
 주물러 주었다. 한참 주물고 나
 니가 그도 몸이 풀리고 자기
 도 몸이 풀렸다. 그래서 그 행
 인을 간성이 업고 가든 길을
 가노라니까 앞서가든 본도인
 종자는 그 동안에 앞서서 수
 장이 되었다고 한다.
 남을 생각하교 사랑하느것이
 불국을 자기들 생각하교 사랑
 하는 것이다.
 마태 10:39, 누가 10:30-35

사람이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술잔하고 사람 잘 때리고...』
 화우간 우습고 형편없는 사람
 이라는 것이 아는 사람들의 평
 한이었다.
 『목사님 이것 보십시오』 하면
 서 팔을 벌고 보이는게 꼭 마
 약 중독자처럼 무슨 상처자의
 가 수두룩하였다. 『이런 놈이
 하나님께 은혜로 회개했습니
 다』 그는 웃으면서 팔을 웃을 내
 리우고 다시 하는 말이 『목사
 님 놀라시겠지요. 제가 야편침
 맞은줄 아시겠지요. 마는 제
 제손으로 상한 것입니다.』



東京通信 (9)
 一田 榮 澤

歷史의 카아브에서

K형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
 나 이제 나라
 는 미약한 존
 제도 세계역사
 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데 적
 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것이 느껴
 진다.
 나 한 사람
 의 의도와 생
 활이 우리 나
 라는 세계역사
 라는 무의한 물
 되는 것은 놀라
 는 이제 격동하
 는 세계역사
 라는 무의한 물
 되는 것은 놀라
 는 이제 격동하
 는 세계역사

전에는 한 사람의 생활은
 그 사람의 운명만을 결정하고
 한 사회의 성쇠는 그것 그
 그 사회의 교세를 좌우하고
 한 나라의 국내외 일은 국내
 의 일로 그 나라 백성에게만
 영향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대요?
 오늘날 세계가 좁아져서 우
 리나라 대동영 선개가 우리나
 라와 일만이 아니요, 세계적인
 문제거리가 되었으니 이제
 한 일에 시행될 미국 대동영
 선개야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
 에는 미소영대진영(美蘇英大
 陸) 대립이라는 일대위기를
 내포한 세계정세로 『고립』을
 용납하지 않는 관계도 있지 마는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역사를
 변하여 이 세계가 되게 하
 려는 하나의 경륜, 그것은
 옛날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마
 찬가지로 아주 깨끗하게 무력
 지부러 들추어 뽑아서 변화시
 키려는 우주적변혁(宇宙的變遷)
 의 첫거름이 아닌가도 생각되
 나.
 K형
 요새는 이땅에서도 총선거로
 신문지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가두선전이 팽창합니다
 일본의 정권을 잡는 정부나
 정당의, 귀손에 돌아가느냐? 일
 본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
 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도 우
 리들의 장내에도 적지아나하
 게 있습니다.

우리는共產主義를

支持할理由가있을가

존 베넬

사회개혁이 크게 요청되는 여러나라에 있어서 공산주의 운동이 어떤 성과를 나타낼 것 같은지 보려면 기독교인 중에는 공산주의의 어느 면만은 부인하지 않으나 다른 어떤 면은 지지한다는 태도를 가지도록 되는 경향이 있다. 곧 사회 혁명이 요청되는 어떤 나라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이 혁명의 상파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게된다. 기독교인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들이 취하는 그 방법을 반대하면서도 「그러나 이것 밖에 혁명의 상파로 보지는 것이 어디 또 있느냐?」하는 질문을 할하는 사람 이 있다. 그는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 가운데서 어떤 할만한것들을 할 것인지를 가명으로 말하면 그들이 자본주의의 어느면들 약평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라든지 또 그들이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자기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그 훌륭한 동기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때때로는 공산주의 선전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요소도 있는가

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세계평화를 대표하는듯이 선전하는데 있어서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원인이나 불평이라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는것이다.

이 위에 설명한 정도의 관찰을 가진 기독교인이란면 그는 그 정신적 균형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수있다. 만일 그가 다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 보코 몇몇을 나루게 보는것으로 그러한 결론에 이른것이라면 그로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것은 그렇게 세찰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 본다고 하여도 크게 잘못 된것은 없지않으나? 고 생각하게 될것이다. 혁명수단으로서의 공산주의의 약한 면은 시간 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없어지 고 진정한 개혁만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해석은 이위에 말한 기회를 주어본다는 생각을 지지하게도 되는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맹렬한 반 공산주의자들이 보이는 좋지못한 태도 같은것도 이위의 면해들 지지 하게 만든다.

一、대안(代案)이 없을때 공산주의에 대하여 이상에

時感

거짓預言者

J. E. F

「거짓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일이라」 마태 7장 15절

예수께서 공산주의자들의 성격을 똑똑히 아셨것을보면 예수당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것으로 생각된다. 이글 처음에 인용한 마태복음의 절은 오늘날 공산당원 취하여 활동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여실히 나타냈었다. 그 말은 가운데에 특별히 「삼가라」 하심 말을 우리는 주의하여야 할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들한테 경계해서 우리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거짓 선지자」라는 술어이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더잘설명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공산당장설과 같. 註는 一八四八년 공산당선언이라는 적은책자를 썼다. 그는 여기다가 세계의 경제와 정치의 주향이 어떻게 전개될것을 예언하였는데 그것은 즉 자본주의 부(富)를 더욱더욱 소수의 사람에게 손에 집중시킬것이고 또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결국 총단결해서 이 세력을 빼앗을것 이 라는것이다. 註는 이러한

예언은 그어느하나도 맞은것은 없었다. 지금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게된다는 산업과 자본주의가 잘 발달되지못한 나라들이다. 처음에 백성들이 수립하였는것은 민주주의 정부였는것이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산주의자들은 이 정권을 빼앗는것이다. 그후 그들은 거짓과 「노략질하는 이리」의 수단을 써서 그 정권을 자기들손안에 넣었고 또 다른 여러나라에 공산주의를 퍼친것이다.

註는 「경제적 결정설」을 가지고 역사의 진전을 예언하였지만 그는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영향이 어떠한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註는 이후 이 두(二)세력은 전인류사회에 음침이어서 정치, 경제, 사회, 각방면에 커다란한

변화를 가져오게한것이다. 만일 註가 오늘날 세상에 다시 나타나고 하면 그는 이 현실사정에 대하여 상당히 놀랄고하면 그는 자기가 일찍 말한바와같이 여러나라에 (혁명)이 있었는것같이 여길것이다. 그는 일찍 이와같은 유도피하여 사회상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있을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반면 그가 만일 노서이나 중국에가서 몇백만명씩 수용되어있는 강제노동소를 보고 또 수없이많은 대중들의 비참스러운 생활상태를 구경하고 다시 또 고급한 리들과 일반대중의 생활의 차이가 청양의 차가 있는것을

가을요

반공전

말한 모양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의의 있다는것을 보코 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미국의 나락에서 기독교인들이 당면하고있는 그 모호한 문제가 무엇이든 것을 충분히 이해 하기 어렵은 것이다. 공산주의는 최악이라고 단정할만한 면 이 없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 이 있어서 독대한 성파를 나타낼 것인가? 혹은 그러한 무의의 하였다면 공산주의보다 나쁜것은 아무것도 공산주의의 혁명적 이론을 취하는 이상적 인 양면은 속 어떠한 대안을 실현케 하려는 좋은 목적들은 분명히 이 목적을 이루는 전제주의적 방식은 없이는 할수없는것이다. 이것은 추상적 의론으로서 실로서 그러한 훌륭한 대안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

오늘 아침 거룩한 아침 하들도 유리로 무운양 맑고도 높고 거룩한 하늘 내 가슴속까지 깨끗하여라 우를초로 씌운양. 맑아지리라

성당의 문에 푸른 나무잎 햇빛에 고이 단장한 열분 문득 불어오는 미풍에 신들한들 나무끼는 모습

★ 그 어여쁜 아가씨의 웃음이 위선자의 길게느리는 기도보다 거짓 선지자의 큰 소리보다

변화를 가져오게한것이다. 만일 註가 오늘날 세상에 다시 나타나고 하면 그는 이 현실사정에 대하여 상당히 놀랄고하면 그는 자기가 일찍 말한바와같이 여러나라에 (혁명)이 있었는것같이 여길것이다. 그는 일찍 이와같은 유도피하여 사회상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있을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반면 그가 만일 노서이나 중국에가서 몇백만명씩 수용되어있는 강제노동소를 보고 또 수없이많은 대중들의 비참스러운 생활상태를 구경하고 다시 또 고급한 리들과 일반대중의 생활의 차이가 청양의 차가 있는것을

文庫版奉仕價送料共50圓
受難民族의必讀의書
苦海의 燈臺
이冊의內容！
한글工夫를兼하여
一讀하라……